

화장품

Sep 28 2026

중국 화장품 시장도 열린다면?

Overweight

유지

오랜만에 중국 화장품 수출 반등

9/1~20 중국향 화장품 수출액은 1.9억달러로(YoY 76%, MoM 193%)로 오랜만에 큰 폭 증가 기록. 현재 추세라면 9월 당월 중국향 수출액이 2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약 2년 만임. YoY 성장률도 5월부터 턴어라운드해, 9월 올해 가장 높은 수준 기록할 전망. 중국향 화장품 수출은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2022년부터는 연평균 21% 감소함. 중국 사업 부진에는, 1) 사드 사태 이후 K-뷰티 관심도 저하, 2) 중국 로컬 브랜드 부상, 3) 중국 내수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2010년대 중반까지 중국에서 가장 활약했던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최근까지 중국 사업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옴. 오랜 기간 중국에서 실적 부진과 사업 축소가 이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중국향 화장품 수출 반등은 유의미한 변화이며, 글로벌 2위 화장품 시장이 다시 열리는 셈.

실제로 중국 시장 진출이 늘어나는 중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서도 확인 가능. 최근 K-뷰티의 중국 시장 재진출을 조망하는 기사들이 등장. 특히 과거와 달라진 점은 과거 중국 시장을 주도했던 브랜드가 아닌, 글로벌에서 이미 흥행을 입증한 K-뷰티 브랜드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임. 이들 중 일부는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사업을 축소한 경험도 있음. 아누아는 2023년 샤오홍슈, 도우인, 티몰 글로벌 등 중국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으나, 2026년 8월부터 세포라 차이나를 통해 중국 시장을 재진출한 것으로 파악됨. 달바글로벌도 최근 중국 법인 설립을 완료했으며, 중국 현지 오프라인 수요가 강하다고 언급함. 메디큐브도 최근 중국 오프라인 시장 강화를 위해 전략적 유통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됨.

인바운드 나비 효과와 색조의 성공 가능성

최근 중국에서 불어오는 훈풍에는 방한 중국인 확대에 따른 나비효과 존재했다고 판단. 사드 사태 이후 중국 내 한국 관심도가 크게 낮아졌던 만큼, 소비재는 제품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와 문화에 대한 관심도 회복이 중요함. 주변 지인의 한국 여행 경험, SNS 노출되는 방한 콘텐츠 등이 한국에 대한 관심과 방문 수요를 높이고, 다시 한국 소비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인바운드 효과가 중국 현지 소비로 연결된다면 수혜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는 결국 올리브영 상위권 브랜드일 공산이 큼. 방한 관광객이 올리브영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귀국 이후 현지에서 재구매하는 경로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임. 과거 시세이도 역시 방일 중국인이 증가하던 시기에 일본 내 인바운드 매출뿐만 아니라, 귀국 이후 중국 현지 재구매 수요 확대를 긍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음. 한편, 색조 브랜드 성장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중국 소비자는 한국과 피부톤, 메이크업 트렌드의 접점이 크기 때문에, 색조 제품을 직접 적용하기 용이함. 실제 샤오홍슈 내 한국 올리브영 쇼핑리스트를 살펴보면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뽀뽀핑크, 웨이크메이크 새도우 팔레트 등 색조 제품 언급이 활발함. 서구권에서 스킨케어가 K-뷰티 확산의 중심이었다면, 중국에서는 색조까지 수혜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음식료/화장품] 권우정

3771-9082,

20240006@iprovest.com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항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항목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당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습니다. 당사 연구원 사칭 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 기준일자_2026.06.30

구분	Buy(매수)	Trading Buy(매수)	Hold(보유)	Sell(매도)
비율	94.7%	4.6%	0.7%	0.0%

[업종 투자의견]

Overweight(비중확대):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Underweight(비중축소):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Neutral(중립):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향후 6개월 기준, 2015.6.1(Strong Buy 등급 삭제)

Buy(매수):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이상
Hold(보유):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10%

Trading Buy: KOSPI 대비 10%이상 초과수익 예상되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
Sell(매도):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 이하